



대구 지하철 2호선 현장의 명물로 다시 우뚝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구지하철 2호선 2공구 현장-



▲ 송 춘 훈 소장

오 늘은 얼마 전 온국민이 함께 울었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한달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생생한 그때 그순간의 사연들을 담은 채 대구를 향해 열차에 올랐다.

대구 거리에서는 하얀 국화와 애도의 현수막만이 억울하게 숨진 시민들을 달래고 있었고, 중앙역 부근에서는 그때 그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마음마저 숙연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찾은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구지하철 22공구(송춘훈 소장)” 현장을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구를 떠날 수 있었다.

다시는 아픈 상처를 만들지 않을 터

오늘 찾아간 현장은 대구의 동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노선 중 연장구간인 2,860m의 지하철 본선과 정거장 시공현장으로 송춘훈 소장의 안전경영 지침인 정리·정돈의 기틀아래 최고의 안전과 고품질을 지향한다.



주변의 환경이 어지러운 작업은 곧바로 사고로 직결된다고 믿는 송춘훈 소장은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곧 작업자들의 의식고취와 직결되는 문제로 작업의 안전교육과 현장순찰에도 적극적이며, 소장으로서의 위엄을 과신하기보다는 스스로 현장에 뛰어들어 실천하고 선행으로 보여준다.

처음 현장을 점검할 당시 송춘훈 소장이 무려 150여가지가 넘는 사항을 지적한 일화는 사내 기관지에도 소개될 정도로 그의 철저함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철저한 안전을 수행하였음에도, 지난 해 발생한 안전사고 하나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었던 가슴이 아픈 경험도 있다.

너무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라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곳 현장사람들의 다짐이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하나로 합심하여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각오 또한 대단하다.

안전현장의 표본이 될 터

얼마전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은 이 곳 현장에서 만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자신한다. 그동안 정기적인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참사가 있은 후 1개월 사이에 무려 3회의 훈련을 행할 정도로 화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길의 확보와 곳곳에 눈에 띄는 대피 유도시설, 소화시설은 준공이 완료된 역사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밖에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 시설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흡연장소는 형식적이지 않은 작업자의 휴식처였다. 일부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노동부 등 관리 감독 기관에서의 불시 점검에서도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작업공정의 표준화 확립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사건 즉,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작업공정에 대한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병수 안전관리자는 강조한다. 이에 이 현장에서는 안전작업 방법이 포함된 작업공정의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교육을 이수케 한다. 현장에서의 불안정한 행동이나 무리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사적으로 재래형 재해 근절

김병수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래형 재해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정해진 규칙의 미준수이며, 둘째로 위험요소에 대한 무관심과 이에 대한 미조치, 셋째로 그 위험에 작업자들이 익

속하지 않은 것, 넷째 자기일만 생각하는 안일주의라고 정의한다.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에서는 전사적으로 이러한 재래형 재해 근절에 나서고 있다.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전 부서를 대표이사 직할 부서로 구성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전 현장에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안전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라고 건설업계에 소문이 난 삼성중공업은 안전에 관련한 무한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안전관리비이다.

안전관리비는 공사이익금액의 일부라는 것이 건설업계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러한 개념을 버린지 오래이며, 오히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법정비율 이상으로 예산에 의무반영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책임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근원적인 안전 확보

고소작업은 아무리 안전시설과 보호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위험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한 예로 고소작업시에는 되메우기를 실시하는 등 주변 작업 여건을 수정하여 고소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작업장 요소 요소에 안전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현장의 안전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밖에 3진 아웃제 실시, 분전반 관리 실명제, 각종 안전활동 자율 참여 제도 등으로 대구지하철 22공구 현장이 준공하는 그날까지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큰형 같은 준재로, 업무와 인간관계, 그리고 직원들의 고민까지 꼼꼼히 챙기는 송춘훈 소장과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김병수 안전관리자, 그리고 다시는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겠다는 대구지하철 22공구 가족이 있어 무재해 준공은 절대로 꿈만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곳 현장에서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안전회동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고의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